

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소피아 대학교	성명	한글	안드레에바 이리나	생년월일	1995년 1월 5일
	영문	Sofia University		영문	Andreeva, Irina	학년	4

100

200

300

400

500

나눔

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
로만 할 수 있는가? 나이가 들면 들수록
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
풀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지만 많은
일을 친구나 가족의 도움이 없이 할
수 없다.

인류의 역사에서는 나눔은 제일 중요
한 것들 중에 하나다. 먼 옛날에는
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눔을 인해
첫 번째로 생긴다. 그 때부터 현대인
저 세기까지 인간이 나눔을 없이 살 수
없다고 생각한다.

나눔은 어떤 것인지, 그리고 왜 필요
한지 알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과
어떤 것을 나눌 수 있는지 알아야 된
다.

첫 번째로 시간이나 물건을 나눌 수
있다.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과 나누
면 둘의 사이에 애착이 간다. 어떤 사
람이든지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적어도
항상 친해질 것이다. 낯선 사람이라도
자기 물건이나 돈을 빌리거나 같이 사
용할 때 애착이 간다. 내가 외국인인데

것으로

느낌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	성명	한글		생년월일	년 월 일
	영문			영문		학년	

100

200

300

400

500

한국인의 특성인 정이란 느낌을 배워서
정이 바로 나눔으로써 든다고 생각한다.
매일 같은 버스를 타거나 교실에서 열
자리에 있거나 직장에서 똑같은 복사기
를 쓰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데도 바
로 그 매일 나누고 있는 것 때문에
애탁이 느낄 수 있다.
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친
해지는 것은 내 생각에는 바로 식사를
나누기다. 불가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낮
선 손님이 오면 주인은 그들에게 빵과
서금을 주고 같이 먹으며 친해진다. 거
의 모든 사람들은 혼자보다 가족이나
친구와 함께 식사하기를 선호하고 데이
트를 할 때 항상 식당이나 커피숍에
간다. 그 이유는 음식을 나눔 것은 제
일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.
두 번째로 자기 물건보다 자기 생각을
이야기로 나누는 것은 제일 중요하다고
생각한다.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
훌륭한 기술이나 기계들은 한 사람만
만든 것이 아니라 깨달을 것이다. 예
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쓰는 키릴 글자
는 형제인 키릴과 메토디 함께 창조했
다. 그런데 생각을 나누는 것은 기계나

음
은

나누는 것이

이

제3회 중·동유럽 성균 한글 백일장

학교	한글		성명	한글		생년월일	년 월 일
	영문			영문		학년	

100

200

300

400

500

기 술 의 발 전 에 중 을 받 만 아 니 라 개 인
 적 문 제 를 풀 려 야 할 때 큰 도 움 이
 된 다. 왜냐하면 남 의 의 견 이 나 생 각 을
 들 어 서 기 문 제 를 결 정 할 방 법 을 더 쉽 게
 찾 을 수 있 기 때 문 이 다. 결 정 할 방 법 을
 못 찾 아 도 자 기 문 제 나 고 민 을 나 누 면
 과 음 이 편 해 진 다. 불 가 림 아 에 서 는 "나 는
 고 민 은 반 고 민 이 다."라 고 한 다.
 세 번 째 로 많 은 사 람 들 은 현 대 인 들 이
 인 터 넷 은 때 문 에 옛 날 보 다 나 누 는 것 은
 적 다 고 하 는 반 면 에 "내 생 각 에 는 바 로
 인 터 넷 으 로 제 일 많 은 것 을 나 누 수
 있 다. 인 터 넷 에 서 무 명 으 로 자 기 고 민 에
 대 해 서 말 할 수 도 있 고 자 기 와 똑 같 은
 의 견 을 가 진 사 람 을 쉽 게 찾 을 수 도
 있 어 서 인 터 넷 은 나 눔 을 편 해 진 다.
 우 리 모 든 사 람 들 은 사 회 적 동 물 이 니
 가 좋 은 것 도 나쁜 것 도 나 누 수 없 이
 살 수 없 다. 물 건 이 나 시 간 이 나 기 뻔
 생 각 이 나 고 민 이 나 나 눔 을 우 리 인 생 을
 관 해 진 다

이제까지

나눔으로

이